

# 경남교육정책 **지공**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발행인 이영주  
 발행일 2021. 4. 30.

## 마을교육공동체는 미래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운영 효과 분석을 통한 가능성 탐색

한 미 영(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 01 들어가며....

- 교육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국면에서 이뤄지는 광범위한 활동과 연결된다. ‘마을이 곧 학교’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또한 ‘학교 안 마을학교’, ‘학교 밖 마을학교’가 내포하는 것처럼, 이제 교육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단순히 연계하는 차원이 아닌 마을과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수준으로까지 개념이 확장되어 마을 내 다양한 자원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교육(삶)과 삶을 연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이 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와 통합되고,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 전체가 마을학교가 됨으로써 학생들의 실제 삶에 기초한 배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시작된 것이 혁신교육지구(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뿐만 아니라 학교와 마을과의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마을교육공동체’라는 개념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즉 초기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혁신’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현재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지향하는 쪽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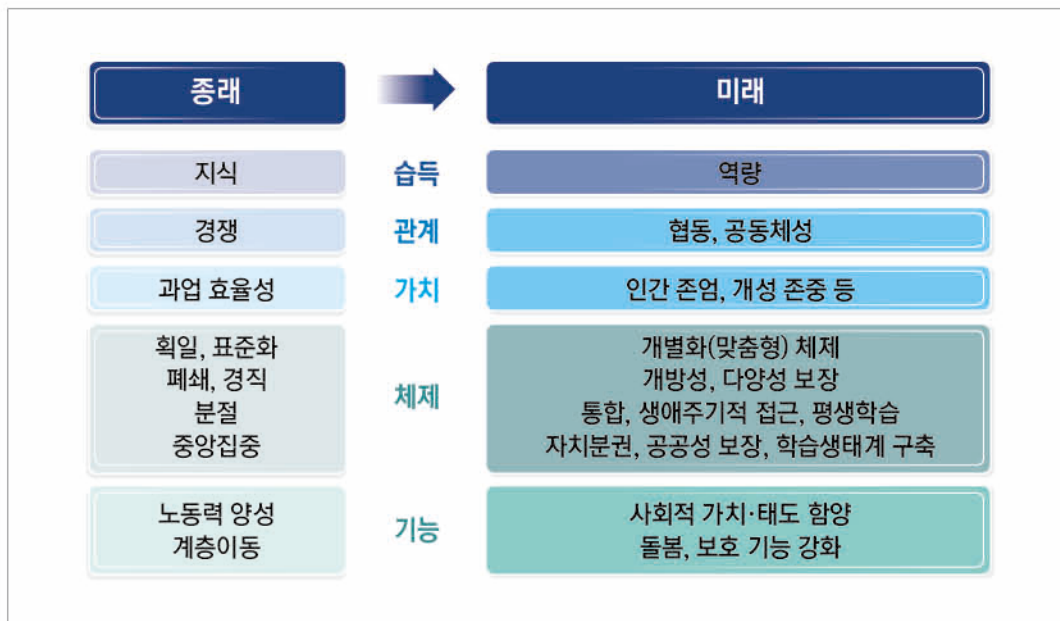
한편, 최근 미래 담론과 관련하여 교육계에서도 미래교육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양한 측면에서 미래교육을 정의하고 특징지을 수 있지만,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키워드 중의 하나는 지역성을 중심으로 한 ‘마을교육공동체’이다.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배움이 필요하며, 이러한 네트워크 기반의 배움은 실제 삶을 경험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활동의 지향과 일치한다. 즉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네트워크 중심의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교육공동체는 민주적 시민교육의 장이자 미래교육의 지향이 될 수 있다<sup>1)</sup>.

이에 본고에서는 경남 행복교육지구를 중심으로 학교 밖 배움터 역할을 하는 마을학교의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교육으로서의 마을학교 및 마을교육공동체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 02 미래교육의 방향 및 미래학교

-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사회, 지능정보사회 등 사회 변화에 따라 공교육에 대한 비판과 미래 학교 및 교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미래학교에 대한 전망 및 대안 탐색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교육의 방향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sup>2)</sup>.



[그림 1] 미래교육 변화의 방향

출처: 류방란 외(2019).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P. 209.

1) 김용련(2019). 마을교육공동체: 생태적 의미와 실천. 서울: 살림터  
2) 류방란 외(2018).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한국교육개발원.

■ 첫째, 미래교육에서 습득하고 함양하여야 할 것은 지식이 아니라 역량이며, 길러야 할 역량은 창의력, 융합적 사고, 문제해결, 비판적 성찰, 자율, 자치, 시민성 등이다.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인재는 풍부한 지식과 정보를 암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적응을 잘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생산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바람직한 인성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점은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sup>3)</sup>.

둘째, 미래교육에서는 경쟁 중심의 관계에서 협동의 관계로 전환하여야 하며, 협력과 공동체성이 중요하다. 또한 중점을 두어야 할 가치는 과업의 효율성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및 개성 존중이며, 미래사회 교육이 길러내야 할 인간은 사유하는 인간이다. 이때의 사유는 성찰하는 사고력으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은 성찰적 사유가 가능한 인간이다. 즉 인간에 대해 성찰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존엄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 그리고 인간이 아닌 존재의 존엄에 대한 고찰로 이어진다<sup>4)</sup>.

셋째, 미래교육에서 학교교육 체제는 종래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되었던 체제에서 학습자 개인에게 맞도록 개별화된 교육체제로 전환되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과 간, 학교급 간, 학교와 학교 밖의 경계 등의 면에서 분절적이었던 것에서 전반적으로 생애주기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통합·융합적인 접근으로 전환되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습생태계 구축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넷째, 미래교육은 사회적으로 노동력을 양성하는 것이나 계층이동의 사다리로서의 기능에서 사회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삼게 될 것이며, 돌봄과 보호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래의 학교는 교육 이외 돌봄, 건강, 안전, 진로탐색 등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전문화된 조직이나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sup>5)</sup>.

## 03

### 행복교육지구의 마을학교 운영

■ 마을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진로를 계발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하에,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민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문화, 예술, 체육, 진로, 놀이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마을학교는 학부모와 지역민 주도로 이루어지며,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학생 주도의 자율동아리 및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방과후학교와는 구별된다. 한마디로, 마을학교는 학생들이 방과후 마을에서 학습과 놀이를 할 수 있는 학교 밖 배움터이자 쉼터라 할 수 있다.

현재 행복교육지구(이하 행복지구)의 마을학교는 운영주체에 따라 학생중심 마을학교, 지역중심 마을학교,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센터형 마을학교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sup>6)</sup>.

3) 조난심(2017).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교육비평(39), 330-347.

4) 이해정 (2017). 미래사회, 어떤 교육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교육비평(39), 369-385.

5) 김현섭, 장슬기(2019). 미래형 교육과정을 디자인하다. 수업디자인연구소.

6)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혁신과(2019). 2019. 행복교육지구 설명 자료.

- ① 학생중심 마을학교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친구들과 특정 주제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거나 평소 관심있는 활동 위주의 동아리를 구성하였을 때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학생이 주체가 되어 마을학교 활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대개 교사가 관리교사의 역할을, 마을교사가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 ② 지역중심 마을학교는 지역 기관(단체, 마을, 법인)에 위탁하여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③ 학교협력형 마을학교는 학교와 마을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와 마을공동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고, 지역의 교육 관련 전문가들이 마을교사로 참여한다. 학교협력형 마을학교는 행복지구뿐만 아니라 행복지구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④ 센터형 마을학교(행복마을학교)는 도교육청이나 행복지구에서 운영하는 거점형 마을학교로, 학교나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행복마을학교는 청소년과 지역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마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미래형 배움터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4개 행복지구별 마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행복지구별로 다양한 유형의 마을학교를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마을학교의 운영 취지는 지역사회 및 마을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마을의 주인(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같다.

<표 1> 행복지구별 마을학교 운영 현황

(2019년 기준)

지구	마을학교 유형	내용	대상	
김해	학생중심 마을학교 (꿈키움마을학교)	자율동아리 및 프로젝트 운영 지원	관내 초·중·고 학생	
	지역중심 마을학교	놀이중심 마을학교	전래놀이, 퓨전놀이, 계절놀이 등	관내 초등학생
		작은도서관 연계 마을학교	독서교육 및 문예 관련 주제(예: 독서, 북아트, 문예 등)	김해 작은도서관
	센터형 마을학교 (김해·장유 행복마을학교)	나비 프로젝트	음악, 공예, 업사이클링, 3D프린트 등	초등 4~6학년 대상
날다 프로젝트		드론, 코딩, 목공예, 문화기획단, 청소년 극단·봉사단·마을기자단 등	중등 대상	
양산	학생중심 마을학교	학생들이 희망하는 자율동아리 지원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역중심 마을학교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학교연계 및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관내 희망학교 및 비영리단체	
	센터형 마을학교 (양산행복마을학교)	-청소년 자기배움터 운영(예: 축제기획, 토론공부, 행사기획 등) -마을동아리, 작업장, 메이커 스페이스, 지역민 연수 등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밀양	학생중심 마을학교 (꿈마중학교)	학교 내 자율동아리 및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 지원	관내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역중심 마을학교 (꿈마실학교)	센터주관형 마을학교	가족과 함께 하는 꿈마실학교	관내 초등학생 가족 단위
		지역위탁형 마을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책마실학교: 비경쟁 독서토론	초·중·고 학생, 교원, 지역민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지역단체가 기획하고 학생 참여	지역 내 기관	
남해	학생중심 마을학교 (보물섬 꿈빛학교)	꿈빛 프로젝트	특정 주제 연구	
		꿈빛 동아리	취미 계발활동	관내 중·고 학생
		꿈빛 아지트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장소 지원	
	지역중심 마을학교 (보물섬 꿈빛키움학교)	꿈빛키움학교	희망하는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지원	유아 및 초등 대상
	바다마을학교	여름방학 기간 전국 학생 대상의 바다특색 프로그램 (예: 수영, 요트, 카약 등) 운영	전국 초·중·고 희망학생 및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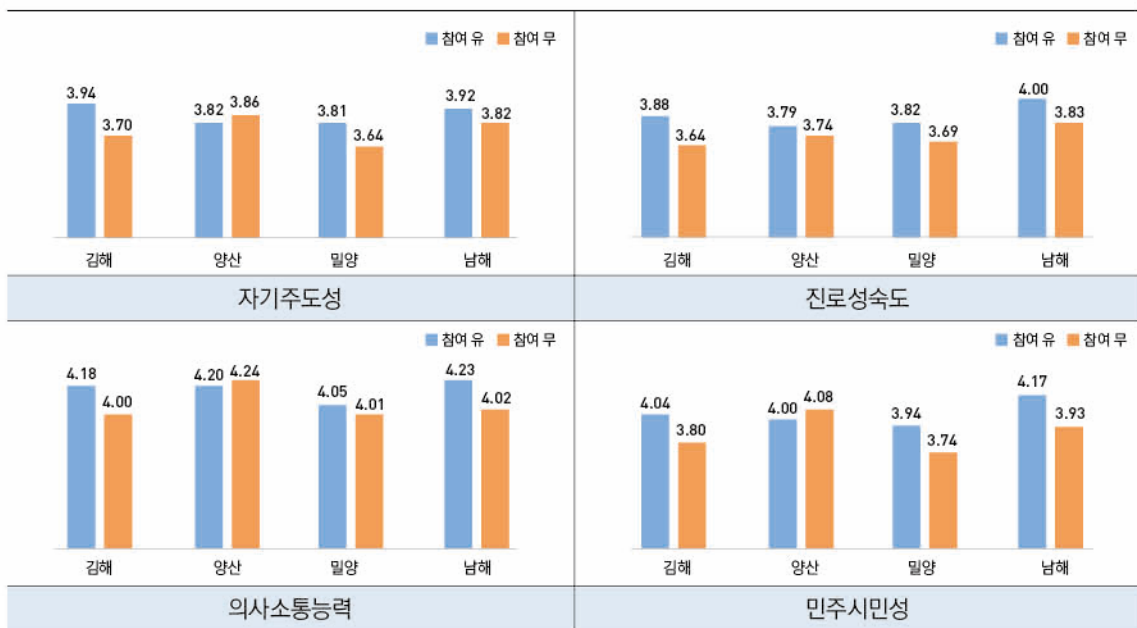
# 04

## 마을학교 운영 효과 분석<sup>7)</sup>



### 가.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핵심역량에서의 차이 분석

■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핵심역량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그림 2 참조), 행복지구별 차이는 있지만 마을학교에 직접 참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체험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진로성숙도, 의사소통능력, 민주시민성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젝트 기반의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마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소통과 협력, 문제해결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향상될 수 있음을 지지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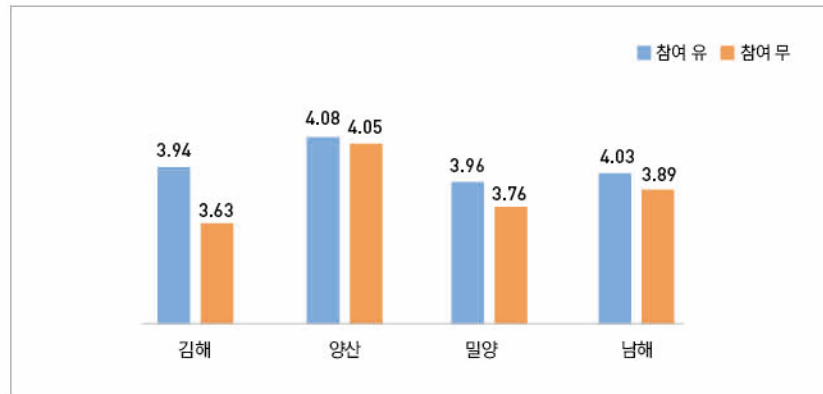
[그림 2]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핵심역량에서의 차이

미래교육에서는 지식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주제와 문제를 설정하여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 의사소통에 기반을 둔 상호작용적 학습, 협력과 탐구에 기반을 둔 협동학습 등 다양한 전략이 요구된다<sup>8)</sup>. 이런 측면에서 마을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하고 질 높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중심 교육, 프로젝트 기반 교육, 학생 맞춤형 및 학습자 주도형 교육 등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7) 「김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성과 분석」(2019, 한미영 외), 「경남 행복교육지구 사업 성과 분석: 양산, 밀양, 남해 행복교육지구」(2020, 한미영 외) 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 나.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에서의 차이 분석

-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에서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그림 3] 참조), 마을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지역공동체 의식 또한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관심 및 애착 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3] 마을학교 참여 유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의식에서의 차이

마을교육공동체의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즉 ‘마을사람’을 키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화된 교육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지역화된 교육이란 마을을 통한 교육, 마을에 관한 교육,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sup>8)</sup>. 이런 측면에서 마을학교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지역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마을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공동체 의식은 학생들이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아가며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자라나는 세대가 실천해야 할 배움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배우는 것이고 그 지역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올바른 주민, 더 나아가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8) 윤종혁 외(2017).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교육 실천방안. 한국교육개발원.

9) 김용련(2019). 마을교육공동체: 생태적 의미와 실천. 서울: 살림터.

## 다. 집담회(FGI) 결과 분석

- 마을학교 참여 경험이 학생들의 미래 핵심역량 및 지역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양적 연구 결과를 명확히 하고 또 마을학교가 학생들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집담회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인 마을학교 운영 효과를 좀 더 확고하게 검증하고자 하였다.

집담회 내용 분석 결과, 마을학교 운영의 성과로 학교생활의 즐거움 제공, 핵심역량 계발,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의 3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p><b>1</b> 학교생활의 즐거움 제공</p>	<p>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가르쳐요. 사실은 음악시간에 즐거워야 되거든요. 노래 부르고 막 손뼉도 치고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즐겁지가, 그게 학문이 되다 보니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또 교과서에 있는 노래 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 시시해요. (중략) 가서 애들 노래도 가르쳐주고 뭐 리코더라도. 요즘 애들이 풍족해 보이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은 허함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가 놀아도 놀 친구들도 없고, 학원가고, 집에 가서도 엄마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탁탁 틀이 잡혀있으니까 애들은 허해요. 그래서 그 허한 거를 뭔가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을 채우는 것 같아요. 애들이 음악실 나가면서, 오랜만에 가슴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고 가는 애들도 있고….</p> <p style="text-align: right;">(○○지구, 마을교사)</p>
<p><b>2</b> 핵심역량 계발</p>	<p>자율동아리(학생중심 마을학교)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느냐면 일반 방과후 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지원이 되거든요. 방과후는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모집해요. 물론 그 전에 수요조사는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 자율동아리는 그렇게 안 하고, 학생 중심이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활동을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는 거야, 자기주도적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모임은 깨지고, 또 새로 하고, 이런 속에서 정말 동아리를 구성하고, 이렇게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들을 자기들이 기르는 거예요.</p> <p style="text-align: right;">(○○지구, 중등교사)</p> <p>애들이 정말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놀이수업을 해보면 진짜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내가 뭐 주목받고 싶어 하고 이런 애들이 단체로 놀아야 되잖아요. 혼자서 못 놀거든요. 단체로 놀다 보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친구들과 마찰이 생기고 이런 것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애들이 정말 잘 어울려서 잘 놀아요.</p> <p style="text-align: right;">(○○지구, 마을교사)</p>
<p><b>3</b>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p>	<p>처음에 이 아이들이 지역에서도 학교 집 학교 집 밖에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근처에 수영장이 어디에 있는지, 운동장이 어디에 있는지, 버스를 타고 나가본 아이들도 없고. 저희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계획 짜고 인솔교사 없이 자기들끼리 나가서 다니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배우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이런 데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의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순간에는 되게 힘들어하는데 나중에 발표할 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약간 애항심 비슷한 것도 생기는 거예요. 내 고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하고자 했던 지점이 소속감, 결국에는. 우리는 왜 항상 서울만 가고 싶어 하고 막 이러잖아요. 언젠가 돌아올 지점이고, 언젠가 성장했던 시절을 얘기할 지점인데 학교 외에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p> <p style="text-align: right;">(○○지구, 행복학교 중등교사)</p>

## 05

## 나가면서....

-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미래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미래인재는 복합적 문제해결력과 융합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 감성적 지능 등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미래인재 양성에 있어 현행의 학교교육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확실해진 것은 미래교육의 공간적 중심이 학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미래사회의 학교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지식을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삶과 연결된 지식의 탐구는 학교가 자신의 담장을 허물고 지역사회와 섞이고, 학생들 개개인의 삶이 학교를 비롯한 학습의 공간에 녹아들 때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미래사회의 교육은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과 기존 교육제도의 틀을 넘어 마을과 지역사회로 교육생태계를 확장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지역민 모두가 교육의 주체로서 역량을 계발·함양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